

## 애국 선열의 한이 서린 민족 수난의 장소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펴낸 김삼웅씨

1908년 일제가 세운 서대문 형무소는 고난의 근현대사와 아픔을 함께한 민족 수난의 상징적 장소다.

이 책은 특정 형무소를 중심에 놓고 서술한 '일제해방운동사' 이면서 일제시대 감옥의 실태를 알려주는 보고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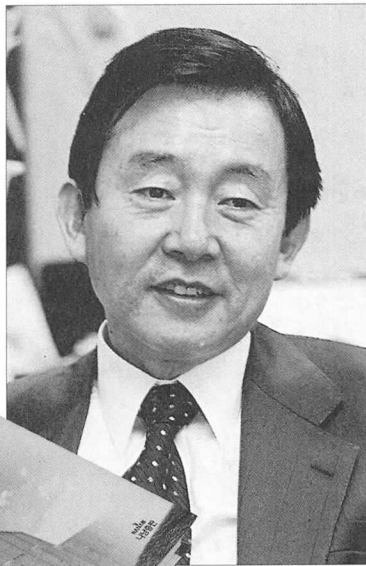
신문도 이따금 '몽니'를 부린다. 출판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마땅히 다뤄야 할 책이 석연찮은 이유로 보도의 기회를 박탈당하곤 한다. 김삼웅씨(58, 대한매일 주필)의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나남출판)에 지면을 할애한 중앙일간지는 6일 현재 단 두곳 뿐이다.

이런 현상은 이태전 김주필이 대한매일신보사의 중역으로 내정됐을 때 신문들이 보여준 관심과 큰 대조를 이룬다. 신문들은 김주필의 이력을 빌미로 '정실인사'라며 따지고 들었다.

"저 아닌 다른 분이 이런 책을 펴냈다면, 모든 신문이 흔쾌히 기사를 썼겠지요. 개인적으로 신문들의 외면에 개의치 않지만, 홍보에 지장을 받는 출판사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출판사에 도움을 못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20여권의 저서를 냈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김주필의 책이 잘 안팔리는 까닭은 사람들이 거부해하는 주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는 지식인과 언론인의 회절과 곡필에 관한 전문가다. 이번 저서 또한 그런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책은 《순국(殉國)》 1997년 11월호부터 2000년 1월호까지 연재한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를 토대로 한다. 25회 연재분에 이승만 관련 부분과 '수감자 명단'을 부록으로 추가해 한권의



김삼웅씨

나남출판/A5신/284면/15,000원

책으로 엮었다. '순국선열유족회'에서 펴내는 《순국》은 항일투쟁과 친일파 문제 같은 민감한 '민족문제'만을 주로 다루는 잡지다. 잡지를 보는 사람도 순국선열 유족과 유관단체로 제한돼 있다. 그나마 군부대의 단체구독이 독자층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연재를 눈여겨본 일부 부대의 장교들로부터 강연 요청이 있기도 했다.

김삼웅 주필은 자료 수집에만 2년을 들었다. 감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개별 형무소에 관한 연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서대문 형무소를 다룬 것은 1988년 열화당 사진문고로 나온 책이 유일하다.

"일제시대나 해방후를 막론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드나든 이는 일반잡범을 제외하고는 거

가 독립운동가나 민주인사들이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집필 금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천봉쇄됐던 데다가, '연좌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 소지가 있어 기록하길 꺼린 모양입니다."

김주필은 서대문 형무소를 '애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한이 서린 곳' '민족 수난의 장소'로 표현한다. 잡지 연재의 속성상 사건 중심으로 쓰다 보니, 혈혈단신으로 독립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을 놓쳤다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그런 점에서 책을 엮으며 추가된 '이승만편'은 개인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청년시절 이승만의 투옥 경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승만은 24살에서 30살까지 6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운동권 출신의 '양심수'인데 반대자를 탄압하는 대통령이 된 셈이다. 이를 김주필은 백범 김구와 대비해 설명한다.

"우리 옛말에 만절(晩節)을 보면 소지(少志)를 안다는 말이 있지요. 젊어서 세운 뜻을 늙은 나이까지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백범의 경우는 그의 모친인 광낙연 여사가 있었기에 초지일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로 백범을 면회온 광여사는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게 경기감사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요."

사반세기를 야당 정치인으로 보낸 김삼웅 주필이지만, 감옥 체험을 해본 적은 없다. 야당 기관지의 편집책임자로 수배와 도피를 반복했으나 구속을 용케 피했다. 그런데 수배를 다니며 자주 찾은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부근이다.

"허허실실한 방법이었지요. 담장 너머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필이 서대문 형무소를 자주 찾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형무소 곁을 지날 때면 근처에 있는 헌책방엘 꼭 들렀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시절의 그에게 그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정보의 원천이었다.

요즘은 공원화한 서대문 형무소를 약속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주필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벽돌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서대문 형무소의 벽돌이다. 이번 책은 '일제시대편'으로 '해방이후편'도 속간할 예정이다. - 최성일 기자